

- 배평암 회장 체제 1년의 성과와 향후 사업방향 -

자립 경영 기반 구축 결산액 예산대비 2배 증가

배평암 회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한국어항협회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 어장의 발전”이라는 수산 기반 조성에 신개념을 도입하며 도약하고 있다.

지난 한해 배평암 회장의 주도로 대외적으로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사업영역확대와 자립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해 최종 결산액이 79억9천1백여만원으로 최초 예산액 41억4천만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실적을 올려 활발히 사업을 추진했음을 입증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협조를 받아내어 협소했던 사무실을 확장했으며,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크린오션」호의 운영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해양 환경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협회의 자립경영 기반을 다졌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기능 종합어항 등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부응해 한국어항협회의 추진방향도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 어장의 연계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회원사들과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연한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임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엔 가칭 ‘어촌어항법’이 제정될 경우를 대비, 어촌어항의 통합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준비하고 법 제정시 협회 명칭을 가칭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변경, 이름에 걸맞게 면모와 위용을 갖추고 업무영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을위한 사업확대 방안으로 국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업무의 수탁운영을 추진하고 조사 설계 감리 및 기술용역 사업도 적극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항협회는 다음과 같이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 어촌어항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강화

어항·어장 시설 설계 연구와 어항의 지정,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조사, D/B화하는 어항 대장을 정리하고 시공사료 발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어업의 소득원 개발과 관련된 어촌어항어장 연계개발 모델 연구와 국가어항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 외국과의 기술교류 강화

그동안 한·일 양국간의 어항 기술개발과 우호증진을 위해 양국을 오가며 실시하고 있는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올해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실시하고 양국 어항인들간 유대강화를 위해 일본 전국 어항어장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의 어촌어항시책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해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도 더욱 내실을 다질 계획이며 기술교류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새로운 어촌어항문화 창달

어촌어항 기술정보지를 더욱 내실있게 제작하고 2002년에 이어 제9회 어촌어항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 수산분야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도서 지역 자매 결연학교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해양환경정화사업의 적극 추진

어항청소선과 다기능해양폐기물 수거선을 연계시켜 년, 150개항 770일의 운항 계획세웠다. 이와함께 해양오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 정화사업을 적극 수입하기로 했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인수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은 서해안과 연안어장, 특별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안수역의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왕돌초 해역의 침체어망 수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특산물인 대게 어획량이 1.9배 이상 증가해 그 효과를 입증한 만큼 인양사업단을 구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울진군 연안 주변어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도 적극 수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식어장의 침적물 인양도 계획하고 있다.

△ 협회 업무 영역 확대

올해 안에 어촌어항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 인원 및 조직의 재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가칭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 및 업무영역이 확대될 경우 어촌어항 다기능 종합개발 모델 제시 및 시범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어항어장 시설 설계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 연구에 전념하고 첨단기능 인공어초 모형 개발 및 시공 등에도 관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엔 정부의 국가어항 기본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회의 고유 기능인 조사 설계 감리 및 기술개발 사업의 용역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어촌어항 관련 이벤트를 기획운영하고 어촌어항관련 각종 정보 콘텐츠를 개발 추진하여 국가어항시설과 이용현황 등을 D/B 자료화하기로 했다. (어촌어항소식)